



DIABLO
SEASON of
WITCHCRAFT

구렁이의
일곱 신부

단편 소설

DAVID A. RODRIGUEZ

작가

DAVID A. RODRIGUEZ

일러스트

GARY LAIB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MATT BURNS, BEN CHANEY, NICK CHILAN,

DAVID LOMEL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CARLOS RENTA,

TAKAYUKI SHIMB, VALERIE STONE

Special Thanks

ROD FERGUSSON, RAFAEL TELLO

번역

최유현, 이재권



Blizzard.com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렁이의 일곱 신부

“자유에는 힘이 필요하다.”

속삭인 말이 벨리트의 머리에 울렸다. 다른 모든 생각과 기억은 의식의 경계에서 희미해졌다. 기진맥진한 지도 오래였으나 벨리트는 쉴 수 없었다. 아직은. 끝을 봐야 했다. 벨리트의 손이 피로 번들거렸다. 맨 팔뚝과 다리에 격자처럼 그어진 상처는 기껏해야 굵긴 정도였다. 벨리트가 칼을 쥐었을 땐, 진홍빛에 흠뻑 담갔던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굶주리고 만족하지 못한 채로 칼이 그녀의 손에서 비틀릴 때, 벨리트는 큰 나무의 살에 등을 기댔다.

살? 살이라고 하는 게 맞나? 소박한 드레스의 얇은 천 아래 느껴지는 나무는 가죽같이 거칠었지만 그래도 껍질의 느낌이 났다. 그러나 거기에선 맥박이 뛰었다. 나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느리고 꾸준한 맥박이 벨리트의 등에 리듬을 찍어 놓았다. 앞에 눕혀진 여인들의 심장 박동이었을까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동시에 울리며 고동마다 커져만 갔다. 그들의 몸에서 생혈을 밀어내면서.

벨리트의 눈이 동료들에게 다시 가닿았다. 하늘에 걸린 거의 꼭 찬 봄밤의 달이, 오래된 나무의 별거벗은 가지 아래 이리저리 흩어져 엮여 있는 여인들에게 음침한 빛을 비추었다. 백의를 입은 몸이 부드럽게 빛나도록. 천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희미해지는 숨결이 차가운 밤에 입김으로 새어 나왔다. 내일 밤 있을 추려내기에서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이었다... 벨리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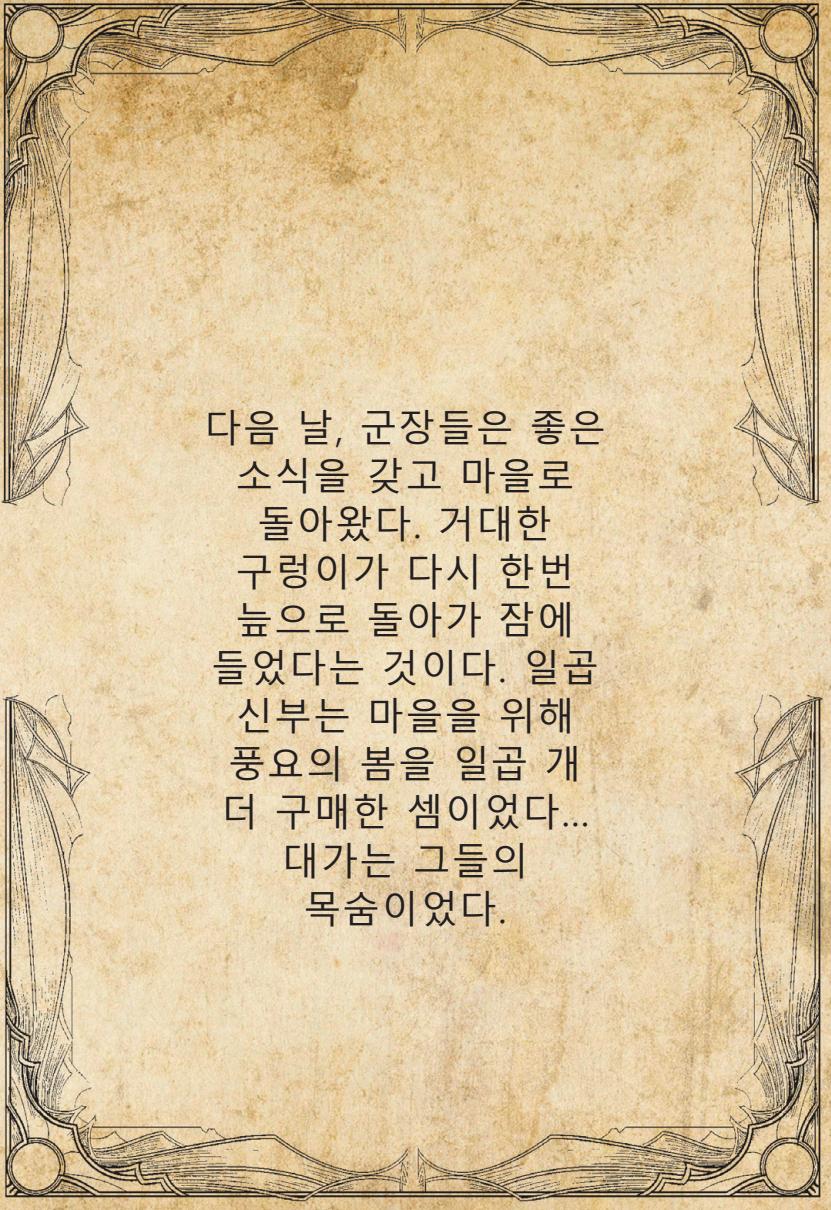
벨리트의 계획만 아니었다면.

첫 추려내기를 보았을 때 벨리트는 아홉 살이었다. 신부 옷을 입은 일곱 명의 처녀가 맨발로 세 군장의 값비싼 저택 밖 뜰을 향해 행진했다. 벨리트를 포함해 모여든 사람들은 일곱 신부가 마을 경계의 유리 같은 물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갈 때 얼어붙은 듯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맑고 시원한 샘은 굽이지는 지류를 통해 샘을 둘러싼 늪에 물을 공급했다. 거대한 구렁이가 지나기에 물길은 너무 좁았을 터였으나, 제물을 받기 위해 반드시 도착할 것이었다. 적어도... 벨리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추려내기는 마을의 어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마을의 지도자는 오래전 자신의 사람들을 늪으로 데려온 강력한 불로불사의 군장 세 명이었다. 오직 그들만이 의식을 주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갈가리 찢기고 피가 튀긴 신부들의 흰 가운은 증거가 되고도 남았다. 다음 날, 군장들은 좋은 소식을 갖고 마을로 돌아왔다. 거대한 구렁이가 다시 한번 늪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는 것이다. 일곱 신부는 마을을 위해 풍요의 봄을 일곱 개 더 구매한 셈이었다... 대가는 그들의 목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7년마다 딸들을 포기하기로 체념해 버렸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엄청난 풍요와 안전 속에 살 수 있었으니까. 거대한 구렁이는 결코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땅은 주위의 늪으로 보호받았다. 벨리트는 마을에서 이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두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벨리트를 비롯한 마을의 모든 여자는 다음 추려내기의 공포를 항상 두려워하며 자랐다.

한 해의 추려내기 명단이 발표되면, 일곱 명의 젊은 여성이 군장들의 개인 경비병에게 집에서 끌려 나와서 모였다. 늪은 부사관이 직접 경비병을 이끌었다. 여자들은 내몰려 물을 내려다보는 작은 오두막에 갇혔다. 다음 날 밤 거대한 구렁이에게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도록, 한 명의 경비병만이 배치되었다. 수 세대에 걸친 추려내기와 세뇌로 인해, 저항한다는 생각조차 웃음거리였다. 군장들은 모두가 순순히 따를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다.

어머니의 과도를 경비병의 목뒤에 꽃아 넣을 때, 벨리트는 바로 그 막연한 생각에 기대를 걸었다. 목이 막혀 끌려거리는 소리는, 벨리트와 다른 신부들이 경비병을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오래 가지 못했다. 다른 신부들에게 계획을 설득한 벨리트는 아침까지 경비병 교대가 없을 것이라 안심시켰다.



다음 날, 군장들은 좋은
소식을 갖고 마을로
돌아왔다. 거대한
구렁이가 다시 한번
늪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는 것이다. 일곱
신부는 마을을 위해
풍요의 봄을 일곱 개
더 구매한 셈이었다...
대가는 그들의
목숨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신부들은 수색조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두 시간도 채 가지 못했다. 모두가 지친 채로 피부를 찢는 짙레 덤불과 발을 끌어당기는 진흙탕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늑 자체가 그들을 방해하려는 듯했다. 이파리 하나 없이 우뚝 솟은 나무 아래 간신히 몸을 피했을 때쯤, 모두가 이미 달아날 수 있다는 희망은 버린 채였다. 일곱 신부는 땅에 쓰러져 진흙에 좌절의 눈물을 뚝뚝 흘렸다. 도박은 실패했다. 벨리트도 실패했다.

그때 속삭임이 들려왔다.

“자유에는 힘이 필요하다...”

일곱 명의 여자는 피로도 잊고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임이 어디서 들려왔는지를 찾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목소리는 모든 곳에서 들렸지만,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모습을 보여!” 신부 중 하나가 소리쳤다.

벨리트는 다른 여자들에게 몸을 바짝 붙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 칼 한 자루를 휘두르며.

“선택을 내려라... 아니면 다른 이들이 선택하리라.”

벨리트는 몸을 돌려 위를 보았다. 이제야 확실해졌다. 속삭임은 나무에서 들려왔다. 수십 개의 머리가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하나를 벨리트는 알아보았다. 스카일라야였다. 혹은... 스카일라야였던 것일지도. 그 젊은 여자는 벨리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내에 가면 벨리트를 돌보는 일종의 유모 노릇을 했었다. 하지만 스카일라야는 칠 년 전, 추려내기에 선발되었다.

스카일라야의 잘린 머리가 나무의 시든 덩굴에 매달려 있었다. 한때 굵고 금빛이 돌던 붉은색 땅은 머리는 위태로워 보이는 구릿빛 실이 되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늘진 눈구멍은 세월과 끔찍한 지식으로 차 있었다. 축 처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양피지 같은 피부에 짝 찢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같은 말만 흘러나왔다.

“자유에는 힘이 필요하다.”

멀리 들렸던 수색조의 소리가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부드러운 파도처럼 벨리트를 감쌌다. 이 나무의 많은 머리는 한때 젊은 여인들의 것이었다.

마을의 여자들이었다.

거대한 구렁이의 신부들이었다.

한때 스카일라야였던 죽은 여자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을 바라볼 때, 벨리트의 숨은 그대로 멎어 버렸다.

“두려워하지 마.” 젊은 여인의 머리가 속삭였다.

“우리가 지식을 나눠 줄게.” 다른 머리가 속삭였다.

“지식이 있으면, 힘과 자유를 알 수 있어.”

“네 생혈을 주고 스스로를 묶어 나무에 봉사해.”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든가...”

“그리고 내일 자매들과 함께 이 가지에 함께 걸리는 거야.”

벨리트는... 모든 신부는 진실을 보았다. 군장들은 구렁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을의 여자들을, 생혈을 나무에 먹인 것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 힘? 불멸? 애초에 구렁이가 마을에 위협이었던 적이 있거나 한 것일까?

주변의 여자들을 둘러보며, 벨리트의 목은 눈물로 메었다. 벨리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군장들은 마을에 몇 세대 동안이나 거짓을 말해 왔으나... 이 나무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여자들은 벨리트를 보며 답과 인도를 구했다. 달아나자고, 군장들에게 저항하자고 설득하지 않았던가. 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늪에 뛰어들어 끔찍한 죽음의 순환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군장들은 그런 밀거래를 했지만, 벨리트의 삶은 이런 선택을 내리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시선이, 머리가, 신부들이, 모두 답을 요구하는 것이 느껴졌다. 모두 벨리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길은 피와 희생으로 이어졌다. 피와...

벨리트는 손에 쥔 칼을 보았다. 아직도 경비병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칼을 훔칠 때만 해도 그걸로 뭘 할지 몰랐다. 자신의 죽음으로 암전히 걸어가는 게 싫었을 뿐. 저항의 순간이 한번 필요했다. 다른 모두가 앓아간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단 한 순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단 한 순간이.

“내 말 들어.” 일그러진 미소를 지은 채, 목에서 간신히 쇠뿔거리며 벨리트가 말했다. “잡히면 우린 내일 다 죽을 거야. 먼저 우리가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 어떻게 할지 알아? 장식한 조랑말처럼 마을을 지나 행진을 시키고 물에 처넣을 거야. 우리가 개죽음당할 때 기뻐하겠지.” 벨리트는 나무에 걸린 머리들을 가리켰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봤지? 구렁이의 신부들에게 실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벨리트가 눈을 치켜뜨고 머리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래. 이 나무는 우리에게 약속해. 힘을... 자유를 줄 거라고. 나는 그런 약속 못 해. 이 거래를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 늪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차라리 여기 이 진창 속에서, 내 손으로, 내가 내린 선택으로, 언니들 옆에서 죽을래. 거짓말이나 해대는 개자식들 섬기다 죽느니.” 벨리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굳은 확신이 어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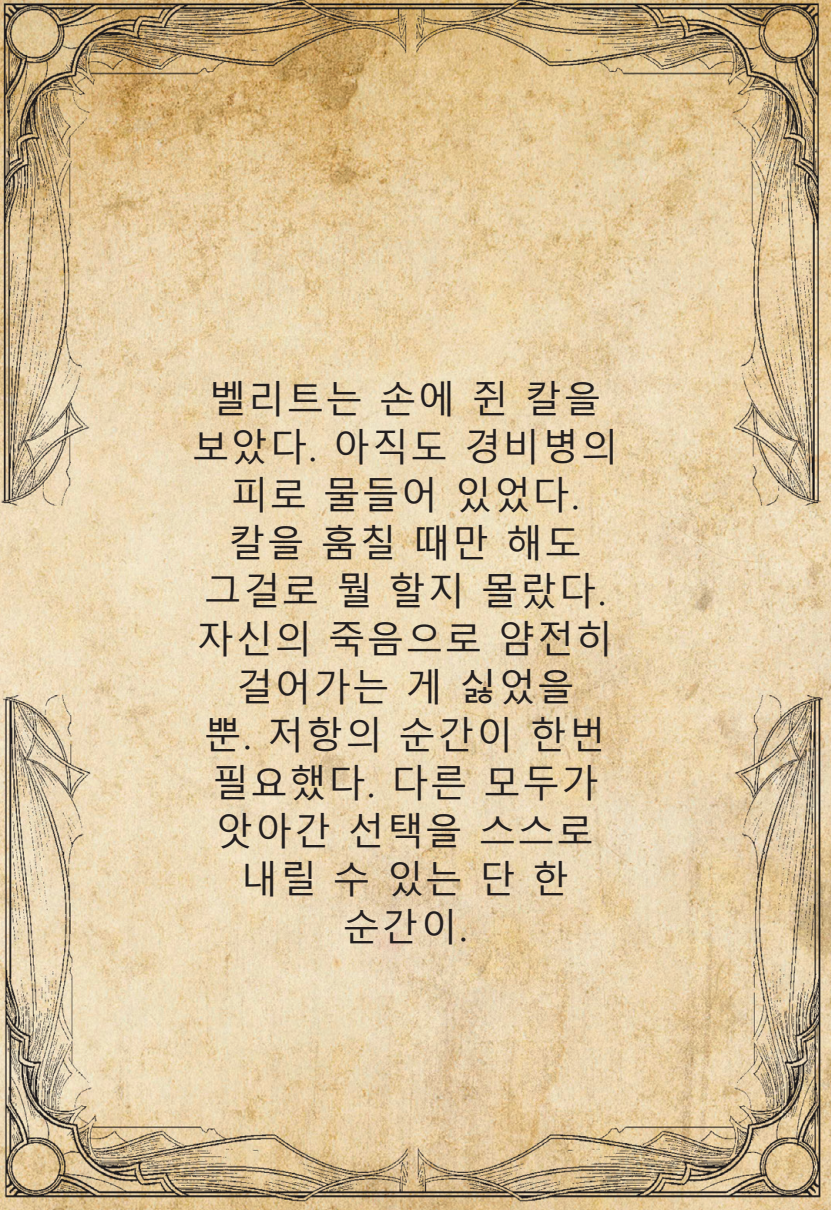
“난 선택했어.” 벨리트가 말했다. “언니들도 선택해.”

여자들이 서로 바라볼 때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여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들쭉날쭉한 원을 그렸다. 벨리트와 나무 기둥이 시작과 끝인 원을. 데노, 라는 이름일 거라고 벨리트가 기억하는 오른쪽에 있던 여자가 벨리트의 손에서 칼을 뽑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빠르게 베었다. 벨리트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보았다. 여자들이 순서대로 단검을 가져다 생혈을 나무의 굽주린 뿌리에 쏟았다. 벨리트는 자신이 그걸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벨리트가 마지막이어야 했다. 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나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봐야만 했다.

늪은 부사관은 밤중에 창날처럼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오자 멈칫했다. 그를 따르는 네 명의 사내는 잘 훈련받았기에 즉시 발을 멈췄다. 늪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위험을 찾아 고개를 돌릴 때 손은 곧장 무기로 향했다. 늪은 부사관은 소리를 듣고 얼굴에 손을 뺀어, 가죽 흉갑 아래에서 목을 지나 오른쪽 뺨까지 이어지는 뼈죽뼈죽한 흉터를 긁었다. 공기 중 무언가가 흉터를 간지럽게 했다. 부사관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염병할 새인가 보군.” 부사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엔 짜증과 화가 어려 있었다. 부사관은 부하들에게 그 터무니없는 여자애들이 남긴 흔적을 계속 따라가라고 손짓했다. “계속 움직여라. 군장들께서 새벽 전에 데러오라 하셨다.” 수색조는 찬성하듯 공 소리를 내고 명을 따랐다. 누구도 왕년에는 잔혹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늪은 부사관의 뜻을 더는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흔적은 이 버려진 늪에서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이어지는



벨리트는 손에 진 칼을
보았다. 아직도 경비병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칼을 훔칠 때만 해도
그걸로 뭘 할지 몰랐다.
자신의 죽음으로 암전히
걸어가는 게 싫었을
뿐. 저항의 순간이 한번
필요했다. 다른 모두가
앗아간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단 한
순간이.

듯했다. 죽은 나무의 우뚝 솟아 드리우는 가지 말이다.

몇 분 되지 않아 수색조는 작은 빈터에 도착했다. 아까 발길을 멈추게 만든 새가 다시 있었다. 큰까마귀였다. 새는 나뭇가지 높은 곳에 해를 들고 앉아 까닥거리고 흔들거리며, 얼굴이 붉어진 부사관을 비웃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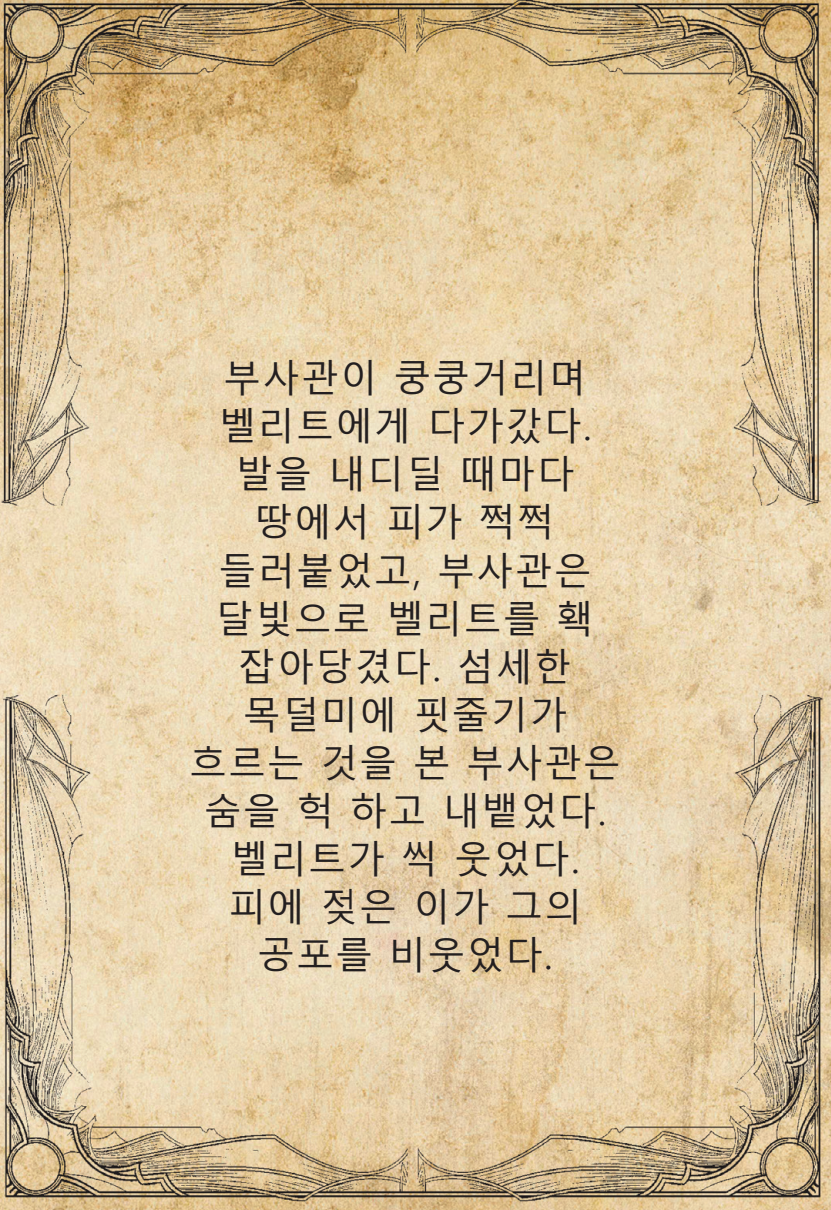
노인의 시선은 새를 따라 아래로 향했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부사관은 뿌리를 짓몽개며 신부들의 몸을 조사했다. 사경을 헤매는 걸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욕설을 내뱉으며, 상처가 너무 깊었고 치유사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다. 부사관은 불만스럽게 이를 갈았다. 군장들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늦었네.” 작은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꺽꺽거렸다.

늙은 부사관이 몸을 획 돌리자, 나무의 거대한 줄기에 벨리트가 기대어 있었다. “너!” 부사관이 내뱉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부사관이 쿵쿵거리며 벨리트에게 다가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에서 피가 짹짹 들러붙었고, 부사관은 달빛으로 벨리트를 핵 잡아당겼다. 섬세한 목덜미에 핏줄기가 흐르는 것을 본 부사관은 숨을 헉 하고 내뱉었다. 벨리트가 씩 웃었다. 피에 젖은 이가 그의 공포를 비웃었다.

“우린 더 이상 같은 주인을 모시지 않아.” 벨리트가 말했다. 속삭임은 꼭 천둥소리같이 부사관에게 내리쳤다. “우린 자유로워.”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나무가 대답하듯 떨렸다. 나무가 몸을 뺀고 자라며, 가지가 끔찍한 생명력으로 하늘을 가르자 뒤편의 부하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무는 고뇌와 즐거움에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나뭇가지가 굵어지고 뺨어나갔다. 뿌리가 땅을 찢고 병사들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벨리트는 부하들이 앞다투어 뒤로 물러나고 모여드는 것을 보자 깔깔 웃었다. 그러나 늙은 부사관은 아직도 벨리트의 어깨를 붙든 채였다. 움직일 수 없던 것이다. 나무 때문이 아니라, 큰까마귀 때문에. 나무가 천둥처럼 쪼개지는 소리에 큰 새가 꿩똥하는 듯한 비명을 더했다. 나무는 자연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듯 달을 향해 가지를 활쭉였다. 연약하고 텅 빈 뼈가 부서지고, 다시 엮이고, 다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동안 큰까마귀는 고통과 황홀경에 차 새된 비명을 질렀다. 큰까마귀는 하늘로 날개를 펼쳤다. 그 어떤 독수리에게도 뒤지지 않을 광대한 철축의 장막을. 이런 새는 있었던 적이 없다. 있을 수도 없다.



부사관이 쿵쿵거리며
벨리트에게 다가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에서 피가 짹짹
들러붙었고, 부사관은
달빛으로 벨리트를 핵
잡아당겼다. 섬세한
목덜미에 핏줄기가
흐르는 것을 본 부사관은
숨을 헉 하고 내뿜었다.
벨리트가 씩 웃었다.
피에 젖은 이가 그의
공포를 비웃었다.

큰까마귀가 거대한 머리를 젖혔다. 금빛 눈은 늙은 부사관에게 고정한 채로. 고대의 눈이었다. 지혜로운 눈이었다. 또한 굶주린 눈이었다.

병사들이 빈터에서 달아날 때, 큰까마귀와 벨리트가 킬킬대는 소리가 섞여 그들의 발치를 빠르게 쫓았다.



밤이 다시 마을에 내리자, 수백 명이 추려내기를 보려 모였다. 군중 사이 속삭임이 퍼졌다. 의무를 저버린 이기적인 여자들이 있다는 등, 저녁의 변제를 마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모은 불쌍한 일곱 명이 있다는 등 한가로운 잡담이었다. 낮의 축제를 맞아 음식과 음악이 실려 있던 수레와 가판대는 이제 닫혀, 곧 있을 행사에 침묵하는 관중을 더했다.

불로불사의 세 군장이 저택 뜰 중앙의 문양 새긴 연단에 섰다. 거대한 화로가 연단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격식을 차린 갑옷엔 보석과 귀중한 금속이 입혀져 있었고, 세월을 잊은 얼굴은 깃털로 장식되고 얼굴을 모두 가리는 투구로 군중에게서 숨겨져 있었다. 늙은 부사관은 연단 옆에서 차렷 자세로 꼳꼳하게 서 있었다. 막 얻은 등의 상처는 흥갑으로 숨긴 채.

군장들이 손짓하자, 여인들이 연단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군중은 침묵에 빠졌다. 금박을 두른 갑옷을 입은 병사 두 명이 군장의 깃발을 들고서는 베일을 두른 일곱 명의 신부의 행진을 이끌었다.

행진이 계속될수록 늙은 부사관의 흉터가 더욱 수시기 시작했다. 늙어서 잃은 신부 하나마다 등에 새긴 일곱 개의 깊은 상처가 맘에 닿아 타는 듯이 쓰라렸지만, 그는 의식 중 움직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군장들 앞의 연단 위에서 여자들이 검사를 위해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을 보며 그는 이를 갈았다. 군장들의 입에서 마을의 엄청난 부와 이 희생이 거대한 구렁이의 굶주림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일곱 해 동안의 영예가 쏟아질 것이라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늙은 부사관은 이미 전부 들은 말이었던 데다가, 불편한 상처와 끔찍하게 간지러운 옛 흉터에 온통 정신이 팔려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깊고 서서히 퍼지는 간지러움이었다. 마치 그때 느꼈던 것 같은...

설마.

군장 중 하나가 앞으로 걸어 나와 중앙에 있던 여자에게 손을 뻗었다. 장갑을 낀 손이 베일의 끝을 건어 올렸다. 늙은 부사관이 앞으로 뛰어 들었다. 경고하러 고함을 질렀으나, 나팔이 새롭게 울리는 소리에 잠겨 버렸다. 그 마녀 같은 년이 습지에서 무슨 말을 했더라?

너무 늦어 버렸다.



군장이 들어 올린 베일 아래에서 벨리트는 씩 하고 웃었다. 목에 깔끔히 난 흰 흉터가 맥동하며 조롱했다. "주군께 속삭임의 나무가 인사를 전합니다." 벨리트가 씩씩거렸다. "제가 적합한 제물인지요?"

군장은 젊은 여인의 눈길에 얼어붙었다.

"나무와 참 영리한 계약을 했더군." 벨리트가 말했다. "일곱 번의 여름을 사는 대신 일곱 개의 머리. 말해 봐, 네놈들 수명을 늘리려고 사람들에게 몸을 바치도록 속이는 건 어려웠어? 아니면 시간이 흐르니까 쉬워졌어?"

군장이 놀라 물러나며 고함쳤다. 허나 연단에서 달아날 수는 없었다. 신부들이 원을 그리며 좁혀 왔다. 벨리트는 군장의 꼬락서니 따위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를 뺀 군장의 투구를 훔쳤다. "네놈들이 다스리는 멍청한 백성은 금과 보석만이 이 땅의 보화인 줄 알지. 그러나 진정한 재화, 너무도 많아 헤아릴 수도 없는 부는 이 안에 있어." 벨리트는 강조하듯 군장의 투구 이마 쪽을 톡톡 건드렸다.

"거대한 구렁이는 완벽한 위협이었겠지. 적도, 아군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두려워했으니. 누군들 감히 네놈들을 위협하려 늑으로 찾아왔겠어. 누구도 감히 떠나지 못했겠지. 누구도 결코 나무를 찾아 네놈들이... 한 짓을... 발견하진 못했을 거야."

벨리트가 고개를 옆으로 획 젖혔다. 무기를 들고 연단으로 뛰어드는 늙은 부사관을 매섭게 노려보며. 벨리트가 턱을 쳐들고 부사관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자 그는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부사관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폭발했다.

"그런데 우린 알거든."

다른 신부들이 울부짖으며 베일을 찢어냈다. 신부들의 팔뚝에 난 흉터는

군장들에게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도 계약을 했어. 금기의 지식, 힘, 자유...”

모여든 주민들은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군장들의 갑주를 뜯어내고, 정의의 심판을 위해 보호의 껍데기에서 끌어낼 때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은 나무를 섬기는 서약을 위해. 나무가 *대단히* 원하는 세 머리를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하지.”

군장들은 자비를 청하지 않았고, 신부들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잠시 후, 군장들의 사지는 박살 난 금속, 뼈, 고깃덩어리 속에 놓여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흰 가운을 입은 신부들은 조용한 심판 속에 서서 잔뜩 움츠린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연단 위에 그림자가 내리자 군중에게서 동시에 혁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거대한 날개를 가진 큰까마귀는 머리 위 달빛을 완전히 가릴 듯 위협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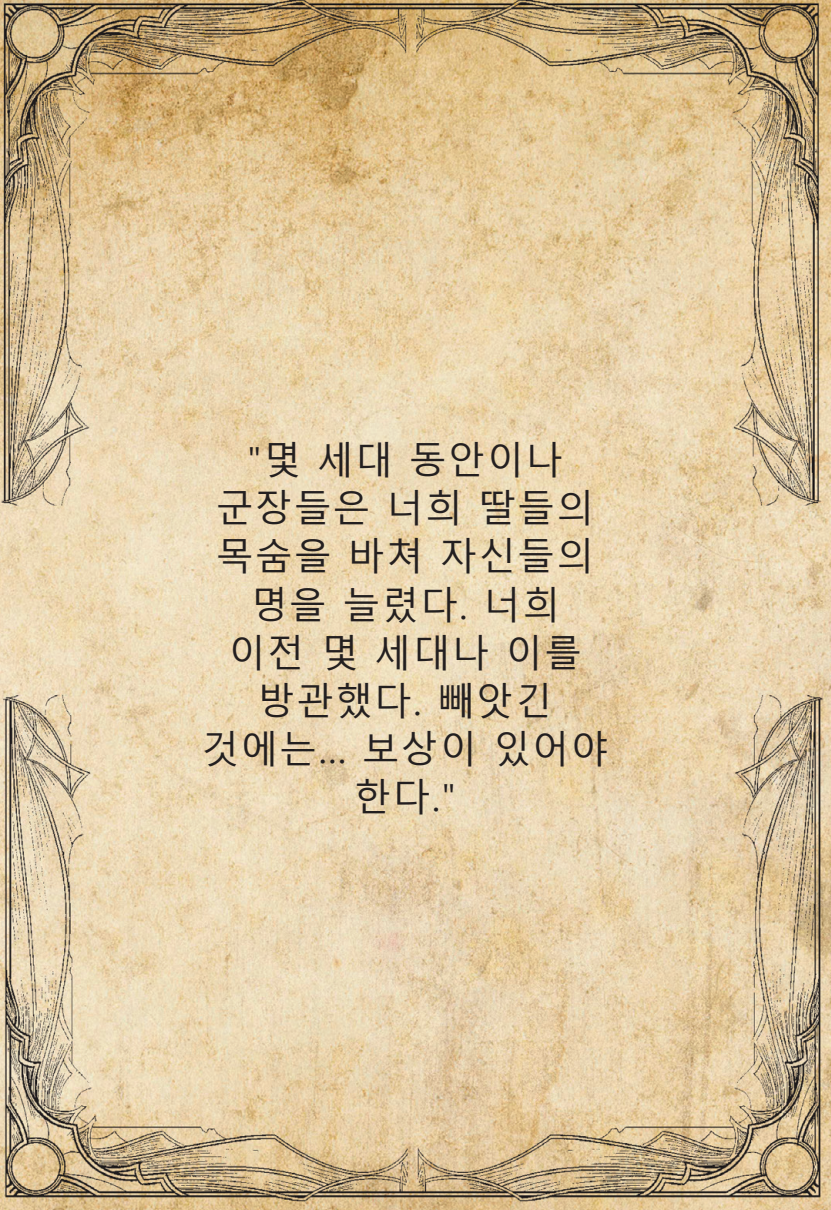
“너희 모두 공범이다.” 벨리트의 음성은 온화했으나, 마치 서약처럼 들을 훑어 지났다. “몇 세대 동안이나 군장들은 너희 딸들의 목숨을 바쳐 자신들의 명을 늘렸다. 너희 이전 몇 세대나 이를 방관했다. 빼앗긴 것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벨리트의 말에 대답하기라도 하는 듯, 큰까마귀가 손살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군장의 시체 하나에 내려앉았다. 새는 거대한 부리를 군장의 목에 꽂아 넣고 찢어내기 시작했다. 공포와 거부, 결백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군중에게서 솟아올랐으나 다시 조용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까마귀는 할 일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첫 군장의 머리를 지닌 채.

“너희는 이 여인들의 간청에 귀를 막았다. 군장들이 베푸는 부의 그림자 속에 살 수 있도록.” 벨리트가 호령했다. 큰까마귀가 돌아오며 낸 꿩눈은 듯한 소리가 벨리트의 말에 방점을 찍었다. 새는 다른 시체에 내려앉아, 두 번째 군장의 목 힘줄을 잘라냈다.

새가 할 일을 하는 동안, 벨리트는 드레스에 손을 뻗어 두 줌 가득 향을 보였다. 벨리트는 화로에다 가루를 던졌다. 엄청난 구름이 앞에 솟아났다. 연기가 뱀 힘줄을 마저 뜯어낸 큰까마귀는 두 번째 머리를 물고 떠났다.

“큰까마귀가 나무에 세 번째 머리를 가져가면, 우리가 나무와 맺은 계약은 봉해진다. 군장들이 오랜 삶을 통해 얻은 지식, 그들의 빛은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 속삭임의 나무를 먹이리라. 허나 *너희의* 빛은...”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몇 세대 동안이나
군장들은 너희 딸들의
목숨을 바쳐 자신들의
명을 늘렸다. 너희
이전 몇 세대나 이를
방관했다. 빼앗긴
것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가운데 벨리트가 손을 이리저리 돌렸다. 하늘 높이 연기를 피워 올리려는 듯. “너희의 빛, 너희 선조들의 피 묻은 빛은, 이미 갇기에 너무 늦었다.”

큰까마귀가 돌아와 세 번째 머리를 가져다 하늘 높이 비추었다. 다시 한번 하늘로 승리의 비명을 내질렀으나, 이번에는 크게 울리는 소리가 답하듯이 들렸다.

모여든 인파는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군중은 서로를 짓밟으며 공포에 차 달아났다. 다른 신부들이 벨리트에게 가, 손을 얹어 반원을 다시 한번 그렸다. 나무와 계약을 맺기로 늑에서 맹세했던 바로 그때처럼.

구렁이의 일곱 신부는 하나가 되어 말했다. “너희는 선택을 내렸다.”

군장들의 저택 아래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솟구치자 대지가 갈라지고 돌이 터졌다. 구렁이는 고대의 세월에 걸맞은 두터운 따리를 틀고, 넘실대며 자리를 지켰다. 신부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포에 찬 비명을 느긋하게 들었다. 그러나 거대한 구렁이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공간에서 존재한 채로. 강대한 마법으로 불러 왔으나, 구렁이의 의지는 언제나 그것만의 것이었다.

일곱 신부는 맞잡은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 읊조렸다. 하나 된 음성은 해방의 합창이었다. 이 이후에는 서로 떠나리라. 일곱 신부는 늑에 각자의 자리를 파내고, 저마다 속삭임의 나무를 심기기 시작할 것이다.

신부들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악마, 치유사, *안재히르*... 마녀. 이날부터 앞으로, 이 신부들과 그들의 자취를 따른 이는 결코 스스로를 다른 자의 의지에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내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벨리트가 포효했다.

끔찍할 정도의 확신과 함께, 거대한 구렁이는 마을 위로 떨어졌다. 큰까마귀는 마땅히 그리하라는 듯 높이 날아올랐다.

마을과 군장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하웨자르의 마녀들이 나타났다. 재와 피에서 탄생한.

작가 소개

David A. Rodriguez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어소시에이트 내러티브 디렉터이자 작가다. 여러 소설 및 그래픽 노블 출간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높은 평가를 받은 *디아블로 IV* 프랜차이즈 작업 중이다. 남시카고 출신으로 록포드 대학에서 뮤지컬학과 예술 학사를 취득했으며 모든 프로젝트에 뮤지컬 수록곡을 더한다는 퀘스트를 이어가고 있다. *트랜스포머: 위 포 사이버트론* 및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2*를 작업한 경력이 있다. *M.A.S.K.*, *Rising Sun*, 헤즈브로의 *First Strike* 등 만화책을 저술했다. 또한 만화책과 게임에 대한 애정을 *스카이랜더스*와 *데스티니 2*와 같은 엄청난 프랜차이즈 작업에 엮어내는 행운도 누릴 수 있었다. 가장 최근 작업으로는 *디아블로 IV*의 확장팩, *증오의 그릇* 내러티브 리드를 맡은 바 있다.